

# 정읍시, 2자녀 가정도 다자녀 혜택

### 지원 조례 개정...상수도 요금 감면·학원비 등 생활 밀착형 지원 증점

정읍시가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최근 혼인한 부부의 출생순위에 출생아 수가 첫째아는 증가한 반면 둘째아부터는 지속 감소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자녀정책 대상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공감해 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다자녀 지원 정책의 대상을 기존의 3자녀에서 2자녀로 개선하고 양육, 보육, 교육, 보건, 주거환경 개선 등 생활밀착형 지원정책 시행의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4일에는 제297회 정읍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다자녀 감면혜택 관련 6개 조례의 '다자녀가정' 기준을 종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제감도 높은 다자녀 지원정책 시행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상·하수도 급수 조례 등 총 6개의 조례에 걸쳐 이뤄졌다.

우선적으로 시민들의 체감이 큰 상수도·체육·문화시설 요금감면, 학원비 지원 등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를 시작으로 제감도

높은 다자녀 지원정책 발굴에도 힘을 계속한다. 특히 일시적 현금지원책 외에도 생활 밀착형 혜택·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켜 교육과 보육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또 자녀 수에 따른 점증적 지원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는 등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집중 발굴할 예정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다자녀정책의 대상이 2명으로 확대되며 보다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실생활에 유용한 지원책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다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6·25 참전 유공자 '화랑무공훈장' 전수

### 정읍시, 강릉지구 전투 공로 故 서명령·윤남술 용사 유족에



이학수(가운데) 정읍시장이 지난 29일 6·25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운 고(故) 서명령 님과 고(故) 윤남술 용사의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는 최근 6·25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운 고(故) 서명령 용사와 고(故) 윤남술 용사의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화랑무공훈장은 나라를 위한 전투에서 뛰어난 공적을 세운 전쟁 영웅들에게 수여하는 명예로운 훈장으로, 서명령·윤남술 용사는 강원 강릉지구 전투에서 무공을 세운 공로로 74년 만에 훈장을 받게 됐다.

이번 전수식은 국방부 육군본부에서 추진하는 '6·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당시에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지만 실제

훈장을 받지 못한 유공자들의 공로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수식에 참석한 유족 윤중수씨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아버님의 희생을 국가에서 잊지 않고 명예를 드높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6·25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헌신한 호국영웅과 그 가족의 헌신을 기억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민·관·전문가 '고창 구도심 살리기' 나섰다

### 공공서비스디자인단 발대 '시장 활성화' 정책 마련 협력

고창군이 군민·전문가 등과 함께 구도심 살리기 정책디자인 마련에 착수했다.

고창군은 지난 29일 고창군청에서 군민과 서비스디자이너, 전문가,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정책디자인단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고창군 공공서비스디자인단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정책디자인단은 '쇠퇴하는 구도심 살리기 프로젝트(고창 금토(金土)끼야(夜)시장 활성화방안 마련)'를 주제로 군민과 정책디자이너, 공무원의 상호작용을 통한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 오는 10월까지 구도심 야시장 현장조사와 아이디어 회의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발대식에 앞서 조영수 서비스 디자이너와 함께 정책디자인에 대한 추진방향 등을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공공서비스디자인'이란 정책수요자인 군민과 공급자인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가 정책



심덕섭(왼쪽 다섯번째) 군수와 정책디자인단이 지난 29일 고창군청에서 열린 '2024년 고창군 공공서비스디자인단 발대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과정에 함께 참여해 공공서비스를 개선·발전시키는 국민참여형 정책모형을 뜻한다.

군은 이번 구도심 살리기를 시작으로 군민·전문가 참여 프로젝트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이 직접 참여해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까지 찾는 주민참여형의 정책결정으로 군민의 역량강화와 지역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남원 '미꾸리추어탕' 해외 입맛 공략

### 미국·호주 수출길

남원 특산품인 남원추어탕이 미국과 호주 수출길에 오른다.

남원시는 지역 식품제조기업 '남원미꾸리추어탕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의 대표 상품이 미국과 캐나다, 호주로 수출된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의 '지리산 품은 남원추어탕'과 '전통 남원추어탕' 총 5310팩이 세계 50여개 국 수출에 관여하는 식품유통사 '삼진글로벌넷'을 통해 30일 수출길에 올라 현지 마켓인 한남체인과 왕마트 등에 진열된다.

협동조합은 100% 국내산 원재료로 최상급 미꾸라지와 남원산 고춧가루, 들깨, 순창 한식 된장, 진안 고랭지 시래기 등으로 레토르트 추어탕을 생산하는 사회경제기업이다.

최초로 토종 미꾸리 양식에 성공, 남원시와 협약을 통한 기술이전으로 지역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업계 최초로 수산 '신지식인상'을 받은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수출되는 '지리산 품은 남원추어탕'은 신선한 활미꾸라지와 백일무시래기를 사용, 타제품에 비



30일 미국과 캐나다, 호주 수출길에 오른 남원추어탕 제품.

해 미꾸라지 함량이 높아 추어탕의 진한 맛을 즐기기에 제격인 프리미엄 제품이다.

'전통남원추어탕'도 1인 가구가 많아진 식문화를 고려해 300그램 소포장으로 중량을 맞춰 한뭇배기에 먹기에 최적의 맛을 재현한 제품이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캐나다, 호주 대륙으로 확대된 판로에 힘입어 추어탕을 기반으로 자체 브랜드 '이호담(이롭고 좋은 것만 담다)'을 비롯해 장어탕, 메기매운탕 등 다양한 제품을 적극 알리는 한편 지역의 타 기업과도 협업해 새로운 간편식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항일독립운동 '기점과 역사' 재정립"

### 윤준병 국회의원, 법안 발의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기점과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항일독립운동 참여자의 명예 선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기점과 역사'를 제대로 정립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항일독립운동 기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있어,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를 받지 못하

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지난 1962년 일제 식민사관 역사학자 등에 의해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이 을미의병(乙未義兵)으로 정해진 후 6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이전의 항일독립운동은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최근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에 명확히 기술돼 있지 않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를 '1894년 일본군 경복궁 점령 사건, 1895년 을미사변, 1905년 을사조약, 1910년 한일합병조약 등 일본제국주의로부터 국권이 현저히 침탈받았거나, 국권이 침탈된 시기'로 규정하는 내용의 항일독립운동 기점 정립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윤준병 의원은 "항일독립운동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바로 세워 미래세대들이 계승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가 항일독립운동의 기점과 역사 정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

상담문의 010-3733-3933